

I. 精油産業의 현황과 위치

1. 우리나라 精油産業의 현황

(1) 精油産業의 성장

1964년 4월 蔚山정유공장(35천BPCD)이 가동되면서

精油産業의 환경변화에 따른 對應方案



趙 源 天
(油公 이사)

우리나라에 石油에너지의 생산공급이 개시되었다.

1961년 정부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제5차 계획 기간까지 거치는 동안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연평균 8.6%의 성장을 보였다.

우리 精油産業은 국내산업의 고도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精油産業 자체도 외형 및 내용 등 질과 양의 면에서 모두 크게 성장해왔다.

경제성장에 따른 石油에너지의 수요증가를 충족하기 위하여, 당초 1개 정유공장에 이어 '66년에는 湖南精油가 100천BPSD의 정제시설을 준공하였고, '72년에는 60천BPSD의 京仁에너지가, 그리고 '79년에는 雙龍精油가 60천BPSD의 정제시설을 건설하여 현재는 5개 精油社가 790천BPSD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2) 原油수입과 原油도입가격

70년 이후 2차의 석유위기('74년 및 '79년)를 거치면서 原油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原油도입 비용은 石油에너지 수요증가에 편승하여 매년 증가되어 왔다.

석유위기로부터 야기된 原油가격의 급등은 해외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 外貨지출증대를 야기, '80-'84년간 原油도입 코스트는 총 상품수입의 23%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외채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수급불안 및 외환부담의 증가는 결국정부의 직

	1961	1966	1971	1976	1981	1985
경제성장률(%)	5.6	12.7	8.8	14.1	6.2	5.0
에너지총수요(천TOE)	9,862	13,100	21,273	29,805	46,052	56,450
石油類수요(천Bbl)	5,428	14,753	71,012	119,710	182,252	192,964
정제능력(천BPSD)	35	40	270	440	790	790

原油 도입 비 추 이

	1964	1968	1973	1975	1978	1982	1985
총도입비(백만달러)	13	71	305	1,328	2,174	6,075	5,499
단위도입비(\$/Bbl)	2.14	1.94	2.96	11.28	13.05	34.06	27.73

접적인 수급 및 가격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가격고시, 수출입승인 및 유통단계의 통제등 다각적인 면에서 精油産業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강화되었다.

2. 精油産業의 역할과 책임

精油産業은 국민경제 체계안에서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석유에너지를 생산,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역할중 주요 기능을 보면, 첫째, 국내·외 石油市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石油製品을 안정적, 경제적으로 공급할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 안정적 공급책임: 국내소요 原油 확보, 시장수요에 맞는 製品의 공급, 소비자 서비스.
- 경제적 공급책임: 原油의 저렴한 구매로 국제수지 부담최소화, 製品의 저렴한 공급으로 국민부담 및 산업의 에너지 비용 최소화

石油에너지의 공급책임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원인 에너지의 공급원
- ② 가정·상업 등에서의 취사 및 난방유류의 공급
- ③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연료유류의 공급
- ④ 국민생활에 각종 생필품인 石油化學 기초소재 및 기타 산업원료 공급

둘째로, 현재와 미래에 걸쳐 脱石油 문명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보다 저렴하고 사용편의성이 높은 代替에너지 / 新에너지를 개발, 공급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는 精油産業의 기업적 존속발전과도 결부되지만, 무

엇보다도 축적된 에너지사업의 경험과 기술, 연구개발능력 및 기존시설의 활용으로 낭비와 손실경감의 합수관계에 있다.

(예컨대, CWF, 석탄액화 및 가스화, Shale oil, Sand oil 등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

精油産業은 이와같이 국민경제 내에서의 책임에 비추어 국민경제를 위한 공공이익에 우선적 과제를 부여하는 산업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3. 精油産業의 환경변화

(1) 石油에너지의 수요구조

국내 1차에너지중 52.3%를 차지하는 石油에너지는 다 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수요구조는 종래의 重質油수요 중심에서 산업원료, 수송 및 가계용 輕質油 수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 환경보전을 위한 低硫黃油의 공급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여 현재는 輕油 및 B-C油에서 각각 64%와 47%로 증가하였다.

(2) 精油産業의 경영여건 변화

'83년 이후 원유공급 여건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原油 가격도 점차 정상화 내지 인하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原油공급시장과 국내 製品수요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국제 石油정세의 불확실성의 상존

- 국제 原油수급 및 油價변동의 불확실성, 불가측성 (1,2차 석유위기 및 최근의 油價폭락)

石油에너지 수요 구성

	생산구성 (%)	수요구성					공공·기타	합
		가정·상업	수송	산업	발전			
휘발유	2.8	91	4,323	128	2	851	5,395	
등유	4.1	6,303	235	1,267	1	238	8,044	
경유	25.7	7,033	26,057	8,820	991	7,006	49,907	
나프타	12.9	-	-	25,105	-	-	25,105	
B-C유	41.0	6,777	5,127	28,344	36,999	2,505	79,752	
아스팔트/기타	13.5	4,618	10,451	4,662	12	6,617	26,360	
합	100.0	24,822	46,193	68,326	38,055	17,217	194,563	
%		12.8	23.7	35.1	19.6	8.8	100.0	

輕質化 및 低硫黃化 추이

	1980	1985	차이
輕質化비율	46%	60%	14%
低硫黃化비율			
輕油	0	64%	64%
B-C유	0	47%	47%

-소비자 의식의 향상

- 경제성 (Economics)과 편의성 (Convenience)을 동시 추구
- 품질, 안전, 환경, 공급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관심증대

(3) 精油産業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

- 세계 原油매장의 2/3를 차지하는 中東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 상존
- 산유국의 下流部門 진출 확대로 완제품 공급비중의 증가
- 산유국 石油製品의 강제수출 압력예상
- 석유에너지 代替에 따른 수급불균형 심화
- 산업용, 발전용 重質연료유의 석탄, 원자력, LNG로의 대체

과거 精油産業이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 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해 되어 왔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누적 이익은 302억원에 불과해 연평균 50억원 이라는 저조한 수익성을 보여왔다.

이와 같이 수익율이 매우 낮았던 이유는 1979년 2차 석유위기로 수급불안 및 가격폭등등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시설의 가동율이 크게 낮아진데 원인이 있으며, 이외에 환율 및 물가상승이 상승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이

精油産業의 손익추이

(단위: 억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합	연평균
稅後이익	△575	△246	529	15	145	434	302	50

精油産業의 自己資本 이익율 추이

(단위: 억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합
자기자본금액	944	1,382	2,568	2,952	3,625	3,830	11,471
損益실적	△575	△246	529	15	145	434	302
自己資本이익율(%)	△60.9	△17.8	20.6	0.5	4.0	11.3	2.0
자기자본이익율	△70.9	△27.8	10.6	△9.5	△6.0	1.3	△8.0
10%대비차이(억원)							

었다.

1980-'85년의 기간중 精油産業이 실현한 연평균이익 50억원(자기자본 이익율 10%에 연평균 255억원, 6년간 1,228억원이 미달)은 환율상승 또는 물가상승율로 할인한 현가기준으로 볼 때, 負의 성과를 보였으며, 결국 精油社의 재무구조는 매년 안정성이 약화되어 왔다.

4. 최근의 原油가격 변화와 그 영향

(1) 原油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전망

'86년초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조정자의 역할포기를 선언한 후 原油가격은 급락현상을 보였다. 과거 대부분의 石油전문가들은 '80년대 후반의 원유가격이 배럴당 30~40달러 선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증가를 전망했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최근의 原油가격 하락은 지난해 말 배럴당 28달러 선에서 3월말 현재에는 현물가격이 11~12달러 까지 떨어졌으며, 장기계약 原油가격도 대부분 배럴당 14~1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原油가격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石油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가격이 약세로 전환한 데 있으며, 다음의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① '79년 2차 석유위기 이후 石油가격이 너무 높게 상승하여 소비국들의 소비절약 및 에너지 代替가 적극 추진되었다.

② 高油價는 신규 油田개발투자를 활성화시켜 전 세계 생산량(특히 非OPEC)의 증대를 가져왔다.

③ OPEC의 공급세어 감소에 따른 영향력 약화와 가격 가르텔이 붕괴되었다.

④ OPEC 국들중 일부 국가간의 불화 및 이해 상반으로 결속력이 약화되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조정자로서의 역할 포기.

최근의 油價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OP-

● 과거 精油産業이 과도한 이익을 거두어 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누적이익은 302억원에 불과해 연평균 50억이라는 저조한 수익성을 보여 왔다. ●

EC石油相 회의가 3월16일부터 2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렸으나, 세계原油價 안정필요성에 이해를 같이하는 산감 원칙에는 동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국별 감량안에 대한 이견으로 완전합의에는 도달치 못하고 4월15일 회의를 재개할 잠에만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原油가격 전망에 대하여, 사우디 야마니 石油相등 다수 전문가들은 당분간 油價하락은 지속될 것이며, 배럴당 8~10달러까지 인하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향후 原油가격은 당분간의 혼미를 거둬낸 후에 적정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 수준은 대개 배럴당 15~20달러 선으로 보고있다.

현재의 油價가 반등하여 적정선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OPEC 회원국중 국가재정을 대부분 石油收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부 산유국이 재정 적자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고,

② 非OPEC 산유국중 油價인하의 선봉역을 담당했던 英國 北海유전의 경우 생산 코스트가 높아 인하에 한계가 있으며,

③ 선진국의 입장에서 볼때, 더 이상의 油價하락은 개발도상 산유국의 재정파탄을 몰고와 채무불이행의 사태 발생시 국제 금융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④ 일반 소비국들도 油價의 지나친 하락은 반등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소비절약 및

최근 原油價格 변동추이

(단위 : \$/B)

유종	12/30	1/30	2/28	3/5	3/15	3/25	3/31
브렌트	26.48	18.53	16.70	15.03	13.31	12.45	10.30
두바이	26.43	19.83	13.70	12.40	11.30	10.85	10.50
WTI	26.63	18.83	13.28	11.98	12.78	12.18	10.43
아라비아나이트	27.93	27.23	27.23	27.23	27.23	N. A	N. A

代替에너지 개발등에 나쁜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볼 때 수요증가에 따른 油價급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2) 原油가격 하락의 영향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제原油가격의 하락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즉,

○베럴당 10달러 인하될 경우 연간 18억달러의 原油費 절약과 부대비를 포함하여 20억달러의 외화 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해외경기, 주로 선진국 구매력의 회복으로

우리 精油産業도 60년대초 후진국 그룹에서 탈피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필요에 따라 탄생하여 70년대를 성장기로 하고, 70년대말 이후에는 성숙기에 이르렀다. 성숙기의 특징은 성장의 정지를 의미하며, 기업이 더욱 성장하려면 變身을 해야하는 단계다.

80년대의 精油産業은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하는 바와 같이, 수요증가의 정체, 수익성의 한계성, 시설대체의 경제성 약화 등의 성숙기 징후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징후에 더하여 중요한 환경변화를 다시 정리하여 보면,

●가격, 수급, 설비투자 등 의사 결정에 있어 정부의 직접규제 방식을 지양하고 精油社의 자율경영과 시장경쟁 원리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이 보다 확대되기를 요망한다.●

수출수요의 신장이 기대된다.

○또한 국내물가의 안정 내지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인 산업활동 지표가 적극성을 보이는 호황국면이 예상된다.

반면, 原油가격이 정상 이하의 가격수준에 있다는 전제하에 산유국간 협의가 있거나 또는 기타 요인으로 가격회복이 필연적 사항으로 예상되므로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石油에너지와 他에너지의 경쟁력유지 및 적정수요 유도

○脱石油정책, 油田개발 및 비축의욕 저하의 방지

○油價인하의 조기 시행으로 그간 축적된 에너지절약 생활화의 이완 방지

첫째,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며, 소비자의 압력증대이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경쟁에 대한 예상이다. 예로 60~70년대에는 볼 수 없었던 산유국의 下流部門 진출로 완제품의 수입과 국내정제 製品과의 경쟁이다.

셋째, 새로운 기술 및 에너지 분야중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강화와 쇠퇴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다.

重質油수요의 감소와 輕質油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의 고도화 및 정제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시설의 효율개선으로 原價절감을 위한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精油産業은 기존 공급제품의 원가절감 및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제고하는 동시에 新에너지 및 代替에너지의 개발을 통하여 수익원의 다변화, 확대가 필요하다. 즉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변신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고 있다.

II. 精油産業 성장의 전략방향

1. 精油産業의 향후 과제와 필요조건

(1)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여건

기업은 그 시대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 생성하고 성장한다. 만일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탄생하지도 않고, 또 설혹 탄생했다더라도 중도에서 소멸할 수도 있다.

(2) 精油産業의 향후 과제

변화하는 시장수요 및 환경변화에 국내 精油産業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한 향후 과제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① 소요原油의 장기 안정적확보 및 경제적 공급기반의

확충

- 原油導入先 다변화 및 국내·외 油田개발 참여
- 오일맨의 자체양성과 原油구매의 Bargaining Power 제고

② 수요변화에 따른 대책의 다각적 추진

- 製品수출입의 탄력적 운용
- 기존시설의 개선 및 시설의 고도화(重質油분해/脫黃 설비의 건설)
- 無鉛휘발유 등 신제품의 공급체계 구비

③ 新에너지 및 代替에너지의 연구개발

- CWF 등 代替에너지 개발
- 첨단에너지 기술 투자

④ 자율적 경영역량의 강화

- 가격 및 품질의 국제경쟁력 배양
- 정부정책 및 소비자 요구의 충족
- 유통구조의 현대화

(3) 精油産業의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

이러한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은 적정이익의 가득으로 기업 유보재원을 크게하여 앞으로 필요한 연구개발이나 설비고도화 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값싼 에너지를 家計, 기업 및 국민경제에 공급할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은 기업이 적정이익의 가득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며, 적정이윤의 최소 범위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適正利潤

- ① 자기자본 비용
- ② 위험부담비(Risk Burden)
- ③ 기타: 기술혁신 및 에너지 절약효과 등

그러나, 油價관리 개념에서 精油産業의 적정이윤은 자기자본의 稅前 16.5%(稅後 약9%)로 물가관리 목적상 확일적 기준에 따르고 있어, 精油産業의 수익율은 성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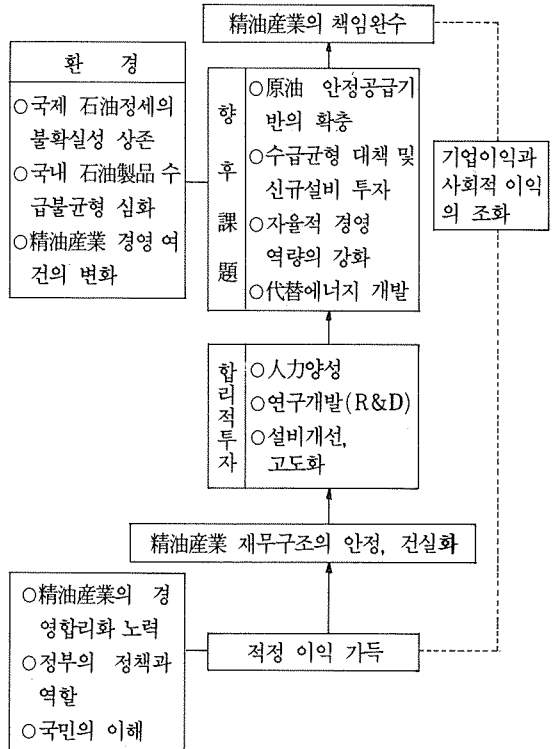
기업의 재무구조 안정을 다른 차원에서 보면, 생산된 부가가치가 국가재정, 기업 또는 가계등 어디에도 유보될 수 있다. 즉 생성된 가치는 국민경제 안에 있게 된다.

이 경우 그 가치가 재정지출에 쓰이든가, 家計지출로 사용될 수 있으나, 기업에 재투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 창

출에 가장 효과적으로 투입된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이윤의 社內유보는 가장 생산적인 가치창출의 선택이다.

(그림) 精油産業의 환경변화와 향후과제



2. 정부의 역할과 정책과제

(1) 정부의 정유산업정책

그동안 국내 精油産業은 국내에너지 수급은 물론, 국민경제 제분야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때문에 정유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의 직접개입(Intervention) 및 통제(Control)가 행해져 왔다.

예컨대 石油事業法에 의한 정부의 직접 油價결정(고시 가격), 原油 및 製品도입허가, 수급조정명령, 설비조정명령이 그것이다.

정부의 직접통제는 우리 경제가 후진단계(저기술, 저자

본, 비합리적 사고 및 행태 등)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精油産業을 탄생시키고 성장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精油産業도 국제화 추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광범위한 직접개입은 단기적으로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精油産業의 체질 약화, 에너지산업간 구조왜곡,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의 왜곡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예를 가져오게 되었다.

(예) 油種間 가격구조에 제반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내포됨으로써 국제油價 구조와 크게 괴리되고, 이에 따라 價格의 시장조절기능(수급조정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이 제한 또는 왜곡됨.

이러한 견해에서 향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精油産業이 전술한 과제와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한다.

첫째, 精油産業에 대한 정책규범의 전환이 요망됨.

제5 공화국 출범 이후 민간주도형으로의 경제운용기조 아래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율활동을 크게 조장했다.

그러나, 가격, 수급, 설비투자 등 의사결정에 있어 정부의 직접규제 방식을 지양하고 정유사의 자율경영과 시장경쟁 원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이 보다 확대되기를 요망한다.

둘째, 정유업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뒷받침이 요구됨. 기업의 재무구조는 궁극적으로 리스크 가동력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의 기간산업/장차산업으로서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精油産業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의 대체유지투자 및 신규투자를 위한 자체 재원조달이 가능한, 즉 재정적 자생성(Financial Viability)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적정유인 개념의 확대 도입이 요망된다.

즉 정부의 油價결정시 현행 원가회수원칙(Cost Based Pricing)에 적정투자 보수확보의 원칙을 추가로 감안함으로써 精油産業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에너지의 안정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세째, 국내 精油産業의 장기적인 구조개편 노력을 지원하자는 정부의 역할이 요망됨.

환경변화에 고도로 민감한 精油産業의 특성상 정유업계는 향후 개방화, 자율화, 국제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능력의 강화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자체 構造改編이 필요하다.

즉, 기존 精油産業(Refining & Marketing) 위주로 부터 해외원유 개발, 石油製品수출입, 代替에너지 개발공급 등 사업영역의 수평적 다변화 및 수직적 계열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유업계의 綜合에너지 企業을 지향하는 구조개편은 精油産業의 건전발전은 물론 국가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건전하게 유도·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Ⅲ. 맺는 말

이제까지 제기된 내용을 간추려 정유업계의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 가운데 그 일부로서 제안하고 또 건의코자 한다.

(1) 精油産業은 국민경제 내에서 국민경제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우선적 과제를 두고

① 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유지

② 기업이해집단에 성과를 배분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유인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2) 精油産業은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고 계속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적정유인이 실현되고, 이익의 社內유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精油産業의 향후 과제로 기존에너지의 경제적 안정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新에너지 및 代替에너지 개발을 추구하도록 투자와 연구개발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4) 이러한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자율결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정책규범을 전환하고, 精油産業의 재무구조개선 및 장기적으로 綜合에너지로 성장(변신)하도록 정부정책의 건전한 유도를 기대한다.

우리 정유업계는 예기치 못한 原油가격 急落의 극적 순간을 맞이하여, 보다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유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항시 깊은 사려와 지원을 다하여 주시는 정부 및 언론계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린다. □